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주제어: 사춘기, 변화, 성장

•책 소개

전국의 십 대들에게 ‘동물화’라는 정체불명의 현상이 일어난다. 아이들은 곰, 사자, 하이에나 등 제각기 다른 동물로 변하게 된다. 야수가 된 아이들은 별도의 시설에 격리되는데,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동물화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자 격리가 해제되고 등교가 허가된다. 이에 학교는 동물화된 아이들과 아직 사람인 아이들이 뒤섞여 몹시 혼란스러워지고, ‘반인반수의 교실’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진다.

•학습 목표

- ①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플롯을 분석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경험과 연관을 지어 읽으며 작품 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다.
- ③ 작품 속에 제시된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가치 판단할 수 있다.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사춘기에 대한 생각 나누기
2	독서 중 활동	곰이 된 태웅 1. (사실적 읽기) 인물 특징 정리하기 2.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3. (감상적 읽기) 장면 묘사하기 4. (창의적 읽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3		비둘기 소녀 세희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1. (추론적 읽기) 사건 발생 이유 추측하기 1. (감상적 읽기) 장면과 유사한 경험 말하기 1. (창의적 읽기) 사회적 이슈 토론하기
4		유 자 비둘기 지훈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사건에 대해 추측하기 3. (사실적 읽기)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장면과 유사한 경험 말하기
5		반인반수들의 교실 1. (사실적 읽기) 인물 특징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구절의 의미와 인물의 소설적 기능 추측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에 공감하기 및 인물 내력 추측하기
6		곰인지 사람인지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파악하기 1. (비판적 읽기) 인물의 행동 평가하기
7		곰과 하이에나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1. (추론적 읽기) 인물 성격 파악하기 및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1. (비판적 읽기)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기
8		키 작은 기린 서우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1. (비판적 읽기) 사건 및 인물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기 1. (추론적 읽기) 인물의 정체 추측하기

차시	단계	활동 내용
9	독서 중 활동	들개와 거리의 아이들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사건 및 구절의 상징적 의미 추론하기 3. (감상적 읽기)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4. (비판적 읽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비판하기
10		의문의 동물, 라텔~태웅의 곰일지 1. (추론적 읽기)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읽기 2.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3. (감상적 읽기) 사춘기의 의미 생각해 보기
11	독서 후 활동	입양에 대한 생각 나누기

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사춘기에 일어나는 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시다.



관련 영상1: 《뉴스G》 청소년 사춘기, 반항의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4bfZfO5kDeU&t=135s>

관련 영상2: 사춘기 시기 뇌 기능의 특징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D20_TMC5LTU

【지도 TIP】

소설을 읽기 전 사춘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다음 노래를 듣고 공감되는 가사를 찾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관련 영상1: 불빨간사춘기 - 「나의 사춘기에게」 가사

<https://www.youtube.com/watch?v=RaMAoj1UfyE>

공감되는 가사	
공감되는 이유	

【지도 TIP】

음악을 들으며 떠올린 자기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3. 다음 영상을 보고 든 생각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관련 영상 : [세바시 청소년]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6e6HkKgfdIE>

【지도 TIP】

어른들의 편견에 맞서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학생의 강연을 보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1. 빈칸을 채워 주요 인물을 정리해 봅시다.

이름	특징
태웅	• 곰으로 동물화 진행됨. • 먹을 것을 좋아하고 소심함.
영웅	• •
누나	• •
엄마	• •
아빠	• •

2. <보기>의 ㉠이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보기〉

“동물화 진행된 한태웅 학생, 이동 수감 명령서입니다.”

“어디로 데려가는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난 애 엄마예요. 보호자가 모르는 곳에 자식을 끌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밀 사항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도 위험할 수 있으니 비켜주십시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자기 자식이 위험하다는 부모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 가까이 오기만 해!”

그 말에 현관문 앞에 대기 중이던 여경들이 매뉴얼처럼 앞으로 나와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누나가 달려들어 차례로 두 사람의 팔을 꺾더니 소파에 고꾸라뜨렸다.

“우리 가족 몸에 손대지 마!”

“맹수로 변한 아이는 무조건 보호시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야생성이 강해져서 가족들도 위험해요!**”

3.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여러분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메뉴	
좋아하는 이유	

2) <보기>를 참고하여 좋아하는 급식 메뉴를 먹는 순간을 묘사해 봅시다.

<보기>

나란 인간은 위장의 지배를 받는 노예인가. 그런 한탄마저 갑자기 떠오른 내일 점심 급식 메뉴로 인해 사라졌다. 무려 한 달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귀하디귀한 치즈돈가스였다. 돈가스를 떠올린 순간부터 태웅의 머릿속은 꽃밭이 되었다. 오로지 먹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했다.

허겁지겁 먹으면 바삭한 식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배만 채우는 셈이니 학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든든히 먹자. 물 붓고 삼 분 기다리는 동안 삼각김밥 두 개 먹으면 황금 타이밍이지. 4교시 끝나는 종 치자마자 1번으로 가서 돈까스는 두 개 달라고 하고 소스는 따로 그릇에 받아야지. 자리가 부족하니 샐러드는 사양!

머릿속으로 먹는 것을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하며 행복 회로를 가동하다 보니 상상만으로도 즐거웠다. 바삭한 돈가스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주욱 늘어나는 치즈의 황홀함을 생각하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태웅의 바람대로였다. 급식실에 1번으로 입장해 갓 튀긴 치즈돈가스를 받아냈다.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 돈가스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혀를 텔 것 같은 열기가 입 안을 달궜다. 돈가스를 다시 뱉어내려는 순간 치즈가 길게 늘어나 태웅의 손에 달라붙었다.

3) <보기>의 ㉠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만약 동물화된다면 어떤 동물일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자신이 곰이 된 이유를.

주말마다 점심까지 늘어지게 자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며 라면이나 끓여 먹던 지난날을 돌이켜봤다. 호랑이나 사자가 아닌 곰이 된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걸까.

문득 ㉠아이들의 동물화가 제 원래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동물로 변하는 것이라고 추측하던 연구원들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육상선수였던 애는 말이 되어서 경마장에 들어가 돈도 번다는데. 난 그저 밥만 축내는 곰이잖아.’

그렇게 주눅이 들다가도 발끈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 왜 이런 걸 먹으며 철창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다혈질 동생이 허구한 날 두들겨대도 가만히 있었고 누나가 훈련한답시고 온몸을 멍투성이 만들어도 꼭 참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태웅은 생각 끝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수학 점수 56점.’

공부하라는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학교에서 잠만 퍼질러 자던 지난날의 잘못의 대가라면 할 말이 없었다. 머리는 게임을 하는 데에 쓰고, 손은 먹는 데만 썼던 날들의 결과물이 이것이라면. 태웅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도 TIP】

자신의 성격과 동물의 습성 간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학생들에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봅시다.

- | | |
|---|-----------|
| ① 세희는 비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비둘기로 변했다. | (O / X) |
| ② 세희 엄마는 구둣주걱으로 비둘기가 된 세희를 쫓아냈다. | (O / X) |
| ③ 세희 엄마는 새 박사의 도움으로 세희가 비둘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O / X) |
| ④ 다른 비둘기들은 동물화된 세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 (O / X) |
| ⑤ 세희는 자신을 지켜주는 회색 비둘기에게 호감을 느꼈다. | (O / X) |

2. 태웅이 곰으로 변한 시점(<보기1>)과 세희가 비둘기로 변한 시점(<보기2>)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동물화가 진행된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1〉

붓물 티지듯 티져버린 울분은 태웅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다른 가족들조차 원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괜한 자존심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뱉게 했다.

“밥 안 먹어!”

모두가 어안이 병병한 얼굴이었다.

“뭐? 밥을 안 먹는다고? 한 달치 급식 식단표를 외우고 사는 네가?”

누나의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자 태웅은 괜한 오기가 솟았다.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 정말 사람이 아닐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보기 2〉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엄마와 싸우고 방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비둘기로 변해버렸다는 것이다. 마술사의 품 안에서 순식간에 비둘기가 튀어나오듯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에서 순식간에 비둘기가 되어 뛰쳐나왔다.

【지도 TIP】

부모와의 갈등으로 대표되는 사춘기의 특성이 동물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입니다. 동물화가 사춘기의 알레고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다음 두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보기1>에서 드러나는 세희와 유사한 깨달음을 얻은 경험을 말해봅시다.

<보기 1>

엄마의 마지막 말은 비둘기 무리 안에서 늘 외톨이였던 세희를 좀 더 씩씩하고 용감하게 만들었다. 다시 볼 가족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비둘기들의 괴롭힘에 기죽지 않게 해줬고, 따돌림에도 의연해지게 만들었다. 비둘기일지라도 여전히 엄마의 딸이라는 믿음은 세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

부모님의 존재는 울타리가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추운 날 온기를 나눠주는 손난로가 되기도 했다. 그 작은 손난로가 주는 온기에 의지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 따뜻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알지 못했다.

2) 나에게 <보기2>의 ㉠과 같은 대상은 누구인지 말해봅시다.

<보기 2>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이 텅 비어서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았다. 세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덩치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해 보았다. 덩치가 사라진 게 왜 이토록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지. 덩치가 그저 울타리가 되어주고 다른 비둘기의 괴롭힘으로부터 지켜주던 우두머리여서 좋아했던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고 이렇다 할 교감도 없었지만 함께한 시간만으로 덩치는 세희에게 충분히 소중한 존재였다.

㉠가족이 아닌 소중한 존재.

4. 다음 영상과 <보기>를 읽고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관련 영상: 길고양이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캣맘”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
<https://www.youtube.com/watch?v=t6ZqxpYh6G4>

<보기>

이유없이 미움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뿌려주는 먹이를 얻어먹지 못하는 것은 더 억울했다. 골고루 뿌려주는 걸 먹는 건데도 비둘기들은 세희를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도둑으로 취급했다. 수많은 비둘기 중 ‘유해 조류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현수막을 읽고 눈치를 보는 것은 세희 혼자뿐이었다. 먹이를 주는 사람도 눈치를 보며 사람들이 자주 오가지 않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가끔 먹이를 뿌리고 가곤 했다.

세희는 ‘유해’라는 말에는 고양이처럼 쥐를 잡아주지도 않는 데다가, 중성화를 시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번식해서 골치 아프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새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도시의 삶에 녹아든 게 비둘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삶의 터전을 공유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고, 비둘기 입장에서는 눈칫밥을 먹게 되는 거고.

[지도 TIP]

자신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1. 빈칸을 채워 지훈에 대해 파악해 봅시다.

- ① 깃털이 돋아난 제 팔을 보고 () 한번 해본 것으로 현실을 인정했다.
- ② 밤늦게 퇴근하시는 () 인 부모님에게 동물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③ 침대 위에 () 과 () 몇 개를 남겨두고 집을 나왔다.
- ④ 비둘기의 우두머리가 길냥이에게 잡히자 자의가 아닌 () 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2. <보기1>과 <보기2>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물화가 끝나는 시점을 추측해 봅시다.

<보기 1>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하지 말아야지. 살아 있는 건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
미 한 마리도 미워할 거야. 안녕이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가버리는 건 다 미워할 거야.’

세희의 뺨에서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 웅숭그린 채 울고 있던 세희의 몸에서 깃털 하나가 떨어졌다

<보기 2>

한여름 더위가 절정으로 치달은 어느 날, 지훈은 조만간 자신이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외적인 변화는 딱히 없었지만 조금씩 심적인 변화가 생겼다.

혼자 벽을 쌓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늘 잠가두던 방
문을 열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또 자신 때문에 고생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 순간, 지훈은 동물화가 곧 끝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지도 TIP】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보기>의 ㉠의 의미를 고려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봅시다.

〈보기〉

세희는 손을 뻗어 선배의 날갯죽지를 꼭 찌르며 물었다.

“꼭. 혹시 이거 알아요?”

“뭐?”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는 얼굴을 마주하고서야 세희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꼭이라니. 너무 바보 같아서 세희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유자일 리도, 유자라 해도 그걸 알아볼 수도 없을 텐데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세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시선 끝에 머리를 박고 잠이 들었던 쿼퀴한 냄새가 나는 운동화가 들어왔다. 차라리 운동화에 머리를 기대고 “이랬던 비둘기 기억나요?” 하고 묻는 쪽이 더 낫지 않았을까. 세희는 그냥 그 비둘기가 자신이었다고 반쯤 고백할까 망설였다. 그때 지훈이 물었다.

“.....㉠아침 거야, 저녁 거야?”

“네?”

지훈은 씩 웃으며 세희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훈은 세희가 동물화된 비둘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지도 TIP】

소설에 제시된 세희의 행동에 근거해서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내성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 괜한 말들이 부풀려지고 소문이 떠도는 걸 익히 보아왔던 터라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 차라리 말이라는 게 없는 동물의 세계가 제 몸에 안성맞춤인 듯했다.

【지도 TIP】

학생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경험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주세요.

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하이에나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관련 영상1: 하이에나가 우는 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0xjVy3hR4Bs>

2.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하나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음식이 더는 당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숲속에서 발견한 죽은 고라니나 새를 뜯어 먹는 쪽이 훨씬 구미가 당겼다. 죽은 동물들은 멀리서도 향내를 풍겼다. 처음에는 씹어가는 살점이 보기 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향에 이끌려 고기 맛을 본 뒤로는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상육은 하이에나야말로 동물화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이놈아, 너 그 몸에 오래 있다간 영영 못 돌아온다. 씹 거기서 나와.”

상육은 제 정체를 한눈에 알아보는 스님에게 깜짝 놀랐지만 천천히 다시 생각해 봤다. 대한민국에 숲속을 돌아다니는 하이에나가 몇이나 되겠어. 때려 짐작해서 동물화된 아이겠거니 생각했겠지.

상육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다가서는데도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다시 말했다.

“㉠ **생명을 죽이고 씹은 고기를 계속 먹어대다간 다신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부엌에 네 음식을 따로 차려둘 테니 먹고 가거라.”

그 말을 마치고 스님은 사라졌다.

1) ㉠에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이후 다시 주지 스님이 등장한다면 상옥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추측해 봅시다.

3. <보기>를 읽고 물음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언니, 베란다 확장 안 하길 잘했다! 우리 밍키 저 덩치에도 집 안에 날리는 털이 감당 안 되는데 꿈은 말해 뭐해. 사람 있는 동안은 나오지 말라고 해.”

그 말은 태웅의 여린 마음속 어딘가를 예리한 칼로 도려냈다. 평생 이 베란대에 갇혀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이모 말에는 태웅은 사람이 아니라는 속내가 담겨 있었다.

(중략)

이모는 귀엽고 예쁘기만 한 제 아이들이 맹수가 될 리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었다. 이번에는 엄마가 혀를 끌끌 차며 이모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모범생인 우리 지연이도 사춘기 때 내 카드 훔쳐서 전남 보성까지 가출했었어. 네 자식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지연이랑 태웅이가 같아? 사실, 아닌 말로 태웅이는㉡…….”

3-1. ㉠을 듣고 태웅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추측해 봅시다.

3-2. ㉡에 들어갈 말을 추측해 봅시다.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 ① 태웅이 곰이 된 이후로 () 을 항의하던 아랫집이 항의하던 일이 없어졌다.
- ② 태웅은 아이들이 () 쪽으로 카메라를 들이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을 두 동강 내버렸다.
- ③ 태웅은 동물화가 진행된 아이들끼리는 서로 () 이/가 통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④ 태웅은 엄마 친구 아들인 () 을 구해주려다 길상욱과 대결을 하게 되었다.

2.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써봅시다.

<보기>

“3학년 중에 ㉠**비둘기**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2학년 중에는 ㉡**하이에나**가 된 사람도 있대. 다른 학교에는 사자도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급은 없네. 그 덕에 ㉢**나 같은 초식동물**도 돌아올 수 있었겠지만.”

㉠	
㉡	
㉢	

3. <보기>에서 나타나는 태웅의 행동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달려드는 상육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않은 건 물론 목덜미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서였다. 녀석이 아이들 앞이라 무는 척만 하고 살살 봐주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태웅은 아무렇지 않았다. 반대로 상육은 곰의 두꺼운 목덜미에 내심 당황하고 있었다. 정육점에서 돼지 목살을 몇 근 합쳐놔도 이

보다는 얇겠다 싶을 정도로 당최 이빨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근육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싸움의 승자는 자신이어야 했다.

상욱은 작전을 변경해 태웅의 얼굴 쪽만을 공격했다. 물어뜯고 할퀴며 얼굴에 상처가 나도록 비열한 수를 쓰자 줄곧 방어만 하던 태웅도 열받은 듯 상욱에게 주먹을 날렸다.

숨 하고 날아오는 게 뻔히 보이는 주먹이었는데,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려 보니 상욱은 몇 미터나 날아가 벽에 부딪혀 떨어진 상태였다.

태웅은 앞발로 얼굴의 피를 닦으며 상욱에게 말했다.

“그만하자.”

“왜? 질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려나 보지?”

어이가 없었고 화도 났지만 태웅은 였다, 관심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상욱은 아픈 몸을 가까스로 펴고 의기양양하게 아이들 사이를 지나갔다. 부딪힌 탓에 등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꼭 참고 버텼다.

그 후 싸움에 대한 소문이 와전되고 와전되어 삼시간에 전교생에게 퍼졌다. 곰과 하이에나가 붙었는데 곰이 만신창이가 되어 쓸개를 털렸노라고.

1.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봅시다.

- | | |
|-----------------------------------|-----------|
| ① 상욱은 태웅에게 맞은 것을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 (O / X) |
| ② 상욱은 태웅의 강력한 펀치를 얻어맞고 갈빗대가 부러졌다. | (O / X) |
| ③ 전교 회장이 호랑이로 동물화되자 학교에 평화가 찾아왔다. | (O / X) |
| ④ 영웅은 태웅의 말을 통역하는 역할을 해왔다. | (O / X) |

2.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보기1>에 드러난 영웅의 성격을 써봅시다.

<보기 1>

“개들이 사람이 아니래도 불쌍하잖아. 형이 풀려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그래서 쓴 거야! 딱 두 글자로. 몸보신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정신 좀 차리라고.”

“두 글자 뭐?”

“웅, 녀!”

영웅의 등으로 오이 하나가 날아갔다. 그날 엄마는 오이소박이를 담기 위해 오이를 다듬던 중이었다. 오이로 등짝을 맞은 영웅은 날쌔 몸으로 집 밖으로 도망쳤고, 땅바닥에 떨어져 조각난 오이는 태웅이 말끔하게 먹어서 청소했다. (중략)

영웅은 신의 한 수인지, 신의 실수인지 모를 놈이지만 아주 가끔, 이런 시원한 오이 맛을 주는 녀석이였다.

2) 위 문제를 참고하여 <보기2>의 ㉠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상상해 봅시다.

<보기 2>

태웅이 상욱에게 목덜미를 간지럽게 물려온 날, 영웅은 태웅의 물골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물화된 아이들끼리의 싸움은 아직까지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말만을 들었다. 상욱의 가족은 치료비조차 물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태웅의 가족을 분노케 했다. (중략)

가족들의 머릿속이 제각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무렵 다들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다. 이런 일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영웅이 조용하다는 것은 녀석이 ㉠역대급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3.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여 물음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관련 영상1: 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https://www.youtube.com/watch?v=h-WmvzCtRh0>



관련 영상2: [심층인터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쟁점은?
<https://www.youtube.com/watch?v=QQApi5Q9v3E>

1) 촉법소년 범죄와 <보기1>에서 드러나는 상욱의 행위와의 유사성을 생각해 봅시다.

<보기 1>

하이에나는 살기를 번뜩이며 태웅을 뛰어넘어 영웅에게 달려갔다.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 죽이는 것은 일 초면 끝날 일이었다. 동물화 상태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저 곰이 증명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어 보였다.

‘만약 한 놈이 죽는다면 남은 애들은 더 큰 공포를 느끼고 내 앞에 바짝 엎드릴 테지. 저놈 하나 희생양으로 삼는다 한들 동물화 상태니까 살인죄로 처벌받지도 않을 거고.’

2) 영상을 참고하여 <보기2>에서 드러난, 태웅을 괴롭히는 아이들의 행동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말해보
시다.

<보기 2>

물론 몸만 곱이고 속은 사람인 태웅에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제 부모 뒤에 숨어 비비탄총
을 쏘는 아이들은 그나마 귀여운 축에 속했다. 학교에서 태웅을 건드리는 사람도 동물도 아닌 아이들
은 화를 크게 북돋웠다.

라이터로 털을 태우지 않나, 꼬챙이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나.

가끔 녀석들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나도 너희가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축법소년이다. 죄를 지어도 형
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 대단한 울타리에 들어 있다고. 그래서 너희를 깡통처럼 찌그러뜨려도 죄의 심
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도 TIP】

작품에 제시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 보는 활동입니다. 축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 ① 기린이 된 두 학생의 이름은? ()
- ② 3반에 원숭이가 된 학생의 이름은? ()
- ③ 서우네 반 급훈은? ()
- ④ 주임 선생님이 서우에게 시킨 일은? ()
- ⑤ 영웅의 SNS 업로드 이후로 인기가 급등한 두 동물은? ()

2. <보기>에서 드러난 서우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써봅시다.

〈보기〉

“우린 전봇대가 아니잖아.”

“다른 애들도 서커스 동물은 아니야. 그런데 개들은 제주도 부리고 응원봉도 입에 물고 연습하더라. 넌 느껴지는 게 없어?”

“다른 사람이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난 같게.”

서우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도망쳤다. 긴 목이 달랑달랑 흔들리며 조금한 마음을 재촉했다. 기린이란 건 왜 이리 쓸데없이 목만 길어 뿔 때도 휘청거리냐고.

원래 저렇게 수궁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서우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가뜩이나 큰 기린, 작은 기린으로 놀림을 당하는 판에 나란히 선 사진이 찍힌다면 오래도록 입방아에 오르내릴 텐데.’

서우가 현수막을 거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옳은 / 잘못된) 행동이다.
왜냐하면

【지도 TIP】

그렇게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 서로 토론하도록 유도하면 학생들의 시각을 균형 있게 길러줄 수 있습니다.

3. 영웅의 성격을 참고하여 ㉠의 질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참, 네 동생한테 말해줘. 나 이제 화 다 풀렸으니까 도망 다닐 필요 없다고.”

“정말이야?”

“근데 원숭이는 네 동생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나중에 네 동생이 동물화되면 이 구역을 아주 씹어먹을 거다.”

“나도 그게 걱정이야. ㉠저 녀석이 뭐가 될지.”

양반이 되기에는 애초에 그른 영웅이 산 아래서부터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뛰어오고 있었다. 날쎈 데다 성질 사납고 힘이 세면서 머리도 잘 돌아가는 영웅에게 도대체 어떤 동물이 어울릴까 태웅도 궁금했다.

“기린 누나!”

“내 말이 맞지? 재는 원숭이가 딱이라니까.”

1. 작품을 읽고 맞는 것에 O, 틀린 것에 X를 해봅시다.

- | | |
|---------------------------------------|-----------|
| ① 주지 스님은 들개가 된 국영을 보자마자 사람임을 알아챘다. | (O / X) |
| ② 들개 무리의 대장은 허스키다. | (O / X) |
| ③ 국영은 몽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고 그가 여자임을 눈치챘다. | (O / X) |
| ④ 국영은 몽키가 숨겨놓은 돈주머니를 빼낸 후 산에서 내려왔다. | (O / X) |

2.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저렇게 놔둬도 될까요?”

“한번 길에 들었으니 힘 떨어질 때까지 달려보겠지.”

두 사람은 국영이 도망간 길로 천천히 걸었다.

“스님은 왜 아이들이 동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⑦ 누구나 거처야 하는 시기지 않나.”

“그런데 동물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렇게 변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⑧ 저렇게 크게 앓고 나면 남은 생애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걸세. 이 시기를 겪지 않으면 늘러둔 제 본능 때문에 언젠가 괴로워할 날이 있을 테고.”

“왜 각기 다른 동물로 변할까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따라 그 길이 생기는 거라네. 가장 많이 머문 곳에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이 그림자가 되고, 그 그림자가 동물이 된 걸세.”

“그럼 채도 걱정이네요.”

“놔두게. 다 필요한 시기일 테니.”

1) ㉞를 통해 알 수 있는 동물화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2) 위 문제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될 것 같은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따라 그 길이 생기는 거라네. 가장 많이 머문 곳에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이 그림자가 되고, 그 그림자가 동물이 된 걸세.”

【지도 TIP】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성격보다는 현재의 관심사나 생활 태도에 초점을 맞춰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다음 영상을 보고 <보기>에 나타난 A의 말을 반박해 봅시다.



관련 영상1: 학교폭력, 방어자를 키우는 캐나다 교육의 힘
<https://www.youtube.com/watch?v=yWbHV5AVegw>



관련 영상2: ‘왕따’ 직접 겪어본다…핀란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https://www.youtube.com/watch?v=eS1a_f58Es4

〈보기〉

“그 원숭이들에 비하면 저 들개들은 그나마 말은 통하잖아. 진짜 동물 새끼들은 인정사정이고 뭐고 없어. 따돌림? 그게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아? 자기들이랑 조금만 이상하면 따돌리고 괴롭히는 거, 그거 그냥 살아 있는 모든 것의 본성이야.”

A: 작품을 보면 집단 따돌림은 동물의 본능이래. 근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걸지도 몰라. 다시 말하면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걸 막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지도 TIP】

사회문화적 노력으로 학교폭력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건전한 가치관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라텔의 습성과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련 영상: 벌꿀오소리에게 천적이란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TMNvSkufi0Ys>

2) 위 문제를 참고하여 <보기>에서 라텔이 하이에나를 뱀길로 유인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

“길상옥, 바보같은 놈.”

“이 새끼, 너 도대체 뭐야?”

“그때도 지금 같았잖아. 생각 안 나? 넌 늘 등 뒤를 안 봐.”

“혹시 너……, 음!”

뒷발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낀 하이에나가 뒤를 돌아봤다. 짧고 통통한 뱀 한 마리가 뒷발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꽂고 있었다. 하이에나는 긴 목을 돌려 뱀을 쳐낸 다음 풀숲으로 던져 버렸다.

“이 자식…….”

“올무 밭 옆은 뱀길이거든.”

하이에나는 풀썩 바닥에 쓰러져 올무에 코를 박았다. 국영이 다가와 라텔을 주둥이로 흔들어 깨웠다.

“형! 죽지 마요! 형!”

【지도 TIP】

동물이 지닌 고유한 습성과 인물의 행동 및 성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작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 작품의 앞부분에 제시된 영웅의 성격 및 행동과 <보기>에서 드러나는 라텔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보기>

“이 몸이 풀어주셨지.”

익숙한 목소리가 옥상에서 들려왔다. 라텔은 소리 소문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넌 뭐냐?”

“내 이름 좀 들어봤을 텐데. 라텔이라고.”

“그러니까, 그 라텔이란 게 뭐난 말이야, 쌍!”

광분하는 대장의 목소리가 온 마을을 움츠러들게 했다.

“네놈이 뭐길래 우리가 잡아온 놈들을 풀어주고 우리 아지트에 불을 질렀냐고!”

라텔은 대장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머지 못난 들개 놈들, 잘 들어라. 너네 대장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간 너희는 영원히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무고한 생명을 죽이면 그만큼의 생명을 살려도 사람이 되지 못해. 지금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영원히 쫓기는 들개로 살게 될 거다, 라고 주지 스님이 전해달래.”

3. 다음 동영상상을 참고하여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관련 영상: 사춘기가 되면 미칠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xCM2Mck7f24>

<보기>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한 그 이야기는 태웅이 궁금했던 동물화의 큰 비밀을 알려준 듯했다.

제각각의 동물화를 겪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함이다. 역설적으로 사람의 태에 어울리는 속마음을 키우도록 그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몸 곳곳에 분홍색 털이 남아 있어 가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동물화 기간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강력한 흔적을 남길 듯했다. 다만 기린이었어도, 비둘기였어도, 뒷다리가 짧은 하이에나였어도 우리는 태어난 존재이고 자라나는 힘든 과정도 축복이라 그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이다. 엄마가 우리를 고통 속에 낳았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태웅은 혼자만의 답을 찾았다.

【지도 TIP】

사춘기는 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이해하고, 인간의 성장을 위해 사춘기가 꼭 필요한 시기이자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입양에 대한 편견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2.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다음 영상을 보고 입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관련 영상: 입양 앞둔 부부의 고민에 입양아가 한 대답
<https://www.youtube.com/watch?v=w1pnUmjvH3I>

2) <보기>에서 이모의 말을 듣고 태웅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말해봅시다.

<보기>

“언니는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 사춘기 때 동물화되는 게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래, 아직 서진이, 서연이는 어리다는 거지? 개들 커서 딱 내 심정 되면 그 말 그대로 해줄게. 여기저기 다들 조금씩은 제 속성대로 변했다고. 사춘기 아이들이 동물화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모는 귀엽고 예쁘기만 한 제 아이들이 맹수가 될 리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었다. 이번에는 엄마가 혀를 끌끌 차며 이모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모범생인 우리 지연이도 사춘기 때 내 카드 훔쳐서 전남 보성까지 가출했었어. 네 자식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

“지연이랑 태웅이가 같아? 사실, 아닌 말로 태웅이는…….”

3. 동영상 본 후 <보기>의 어린 태웅에게 편지를 써봅시다.



관련 영상: 입양 가족의 과거 사진 같이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LO48FiSnaU>

<보기>

누나는 몰라도 자신과 동생 영웅은 엄마와 아빠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니까. 태웅은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초등학생이 될 무렵 알았다. 엄마가 너무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나 가슴 아프지 않게 이야기해 주었기에 상처가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사실 널 데려오기 전에 누나와 너 사이에 두 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유산으로 힘들어했었다는 건 누나를 통해 들어 알고 있었다. 태웅과 영웅처럼 남자아이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태웅에게

_____ (이)가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울러 장편소설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울러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울러 장편소설
- 07 병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콜먼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04 스쿼시 팀 보울러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울러 장편소설